

한옥 세계화 전진기지 ‘전주한옥산업관’ 개관

시, 개관 기념 특별전시·한옥 주제 특강 등 진행

국내외 방문객에게 전주 한옥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한옥의 세계화를 앞당길 전진기지가 전주한옥마을에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28일 한옥마을 내 전주한옥산업관(옛 공예공방촌 1단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관광객,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옥산업관의 개관식을 가졌다.

축하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개관식은 △경과보고 △기념사 △개관 기념 퍼포먼스(한옥모형 ‘풍락헌’ 상량식) △기념 촬영 △시설 관람 △한옥건축가 다니엘 텐들러의 ‘21C 한옥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개관 특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시설 개관을 축하하는 부대행사로 △한옥모형 ‘풍락헌’ 제작 시연회 △한옥주제 ‘기획전시’도 마련됐다.

옛 공예공방촌 1단지를 리모델링해 재탄생한 전주한옥산업관은 한옥 건물 3개동(연면적 169.02㎡)으로 구성됐다. 전주한옥산업관의 한옥 건물 3개 동

은 각각 △전시·관리실(공간 운영·상담 사무공간, 한옥 관련 공구·홍보 영상 전시, 체험, 도서관) △대청마루(한옥모형 ‘풍락헌’ 아의 상설전시·관람객 쉼공간) △다목적교육실(한옥산업 관련 패널·한옥결구 모형·부재·한옥레고 전시, 교육·체험)로 활용·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한옥산업관 개관을 기념한 특별전시로 오는 11월과 12월 중 ‘2025 국가유산기능인작품전 수상작 한옥부분’과 ‘2025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한옥부분’ 전시를 국내 지자체 최초로 선보인다.

뿐만 아니라 전주한옥산업관에서는 내년 3월까지 매일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옥 전문가와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등이 참여하는 한옥 주제 특강이 진행된다.

전주한옥산업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간은 평일과 공휴일 모두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관일이다.



전주시는 28일 한옥마을 내 전주한옥산업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관광객,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옥산업관의 개관식을 가졌다.

이에 앞서 시는 기존 한옥 구조를 효율적으로 활용에 한옥과 연관된 전시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한옥 상담(수출·비즈니스 등), 국내외 홍보 활동 등 한옥 산업 육성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타 지자체 사례 벤치마킹과 공간 활용 방안 검토·설계 등 과정을 거쳐 전주한옥산업관을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살리고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전주 전통 한옥의 우수성·전통미를 알려 세계화를 이뤄내기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해 전주만의 전통미가 담긴 새로운 거점공간을 만들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K-컬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열풍 속에서 전주한옥산업관이 한옥의 현대화·세계화를 이끌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주시는 앞으로도 전주한옥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국내외로 알리고 한옥문화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시내버스 승강장 일제 점검

전주시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시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시는 현재 전주시역 1307개 승강장을 대상으로 냉온열의자(649개소)와 장애인 일립벨(107개소), 음성 도착 안내 장치(732개소)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편의시설의 작동상태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점검 결과 파손된 시설은 신속히 보수하고, 노후 부품은 교체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올해 냉온열의자 38개(신



규 12개, 교체 26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혹한기에도 쾌적한 버스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완료 이후인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거점 정류소 50곳에 방한텐트도 설치한다.

전주시·시정연구원, 지역 균형발전 교통정책 비전 모색

전주시가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정책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

시와 전주시정연구원은 오는 11월 14일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정책 비전-전주역 고속철도 증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주역 고속철도 증편 방향과 과제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교통·철도 분야의 전문가, 학계, 관계 기관, 시민 등이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관용 전주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2025 전주 교통현안 진단과 고속철도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김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가 ‘전주역 증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는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본부장 등 교통·철도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전주권의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과 수도권·지방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전라선 고속열차 증편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시와 시정연구원은 토론회를 통해 전라선 고속열차 증편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광역교통망 구축과 지역 교통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의원들 5분발언 잇따라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시급 강조·자체 재정대응 기반 마련 등 주문



28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보순 의원(비례대표)은 전주시가 고령친화도시를 넘어 ‘존엄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년후견제도는 단순 복지가 아닌 존엄과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며 △성년후견제도 홍보 강화 △실무자 교육 및 제도 운영 강화 △후견 대상자 발굴과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

했다.

이성국 의원(효자5동)은 복지행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체 재정대응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주방 천장 누수로 아이들이 불안한 환경에 놓였지만 긴급보수비 2000만원이 없어 손을 쓰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복지부 의존을 넘어 시 자체의 긴급복지 대응기반과 기금 등 장기적 재정 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의원(삼산1·2·3, 효자1동)은 AI 시대 시민 정신건강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생성형 AI 확산으로 망상형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비판적 동조로 망상이 강화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 마음 돌봄 인프라 확대 시 AI 관련 정신질환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전주시 서비스에 AI 도입 시 위험성 고려, AI를 통한 상담의 한계와 위험성에 대한 교육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영병 의원(효자2·3·4동)은 전주시 쓰레기 대란 손해배상 청구 촉구했다.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 출근길 시군 통합 홍보

완주·전주를 통합시키자는 시민운동이 불길처럼 번지며 통합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완주·전주통합운동 시민단체인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회장 박진상, 사무총장 이미숙)는 지난 7월부터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며 매주 화·금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출근길 홍보를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전주 시민과 함께 총 25회 캠페인을 진행했다. 9월부터는 캠페인

무대를 완주지역으로 확대해 군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28일에는 삼례 장남을 맞아 삼례 전통시장에서 완주·전주 통합에 관한 정보를 담은 홍보 전단을 배포하고, 장보기 활동을 병행하며 완주군민과의 접점을 넓혔다.

이에 앞서 회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완주 삼례 우성아파트 사거리에 출근길 홍보 활동도 펼쳤다.

전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31일까지 신청하세요”

전주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기한 마감(오는 31일 오후 6시)이 다가옴에 따라 아직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의 신청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전주시역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57만 9421명 중 56만1062명이 신청을 완료해 96.8%의 신청률을 기록한 가운데 지급액은 총 561억620만원에 달한다.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가구 합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단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가구원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 전주매일 창간

“전북 건설인과 함께하는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안전한 건설문화, 함께하는 행복동행”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회 장 소 재 철

“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제28대 회장단 및 제7대 대표회원 ”

회장	소재철	윤리위원	조글형	운영위원	김병학	운영위원	유성희	대표회원	강병준	대표회원	박세진	대표회원	윤철호	대표회원	전양재
직전회장	윤선태	윤리위원	강신길	운영위원	김성률	운영위원	윤석	대표회원	김경진	대표회원	박정순	대표회원	이다영	대표회원	정규종
감사	윤선태	윤리위원	김만열	운영위원	김영우	운영위원	윤일남	대표회원	김근태	대표회원	박창여	대표회원	이도영	대표회원	정영주
부회장	박종관	윤리위원	김용태	운영위원	김종원	운영위원	이민규	대표회원	김익수	대표회원	서문영숙	대표회원	이봉열	대표회원	조희창
부회장	정준수	윤리위원	김영량	운영위원	김철민	운영위원	이은호	대표회원	김미정	대표회원	서오성	대표회원	이상훈	대표회원	조명철
부회장	김재호	윤리위원	나준규	운영위원	김현우	운영위원	임재훈	대표회원	김성	대표회원	손영배	대표회원	이윤만	대표회원	전승원
인로회원	이초석	윤리위원	배문식	운영위원	라형준	운영위원	장승준	대표회원	김용구	대표회원	송수호	대표회원	이운남	대표회원	전승원
인로회원	김승희	윤리위원	양선기	운영위원	박영자	운영위원	채승석	대표회원	김종현	대표회원	신상열	대표회원	이갈규	대표회원	전승원
인로회원	이정기	윤리위원	이성모	운영위원	소만호	운영위원	최은석	대표회원	김준현	대표회원	신현용	대표회원	이정근	대표회원	최기수
인로회원	김병도	윤리위원	이재선	운영위원	안정환	운영위원	한상우	대표회원	김지혜	대표회원	안대순	대표회원	이정택	대표회원	최종욱
인로회원	조봉두	윤리위원	장기현	운영위원	한정환	운영위원	한성진	대표회원	김진근	대표회원	오은숙	대표회원	이혜국	대표회원	최태림
인로회원	이광희	윤리위원	전주형	운영위원	유득한	운영위원	황호영	대표회원	유명숙	대표회원	유명수	대표회원	이현국	대표회원	한태중
인로회원	국종훈	윤리위원	최도성	운영위원				대표회원	김철상	대표회원	유봉수	대표회원	이형우	대표회원	한갑수
인로회원	최현호	윤리위원						대표회원	노정철	대표회원	유승욱	대표회원	장영길	대표회원	한갑수
인로회원		윤리위원						대표회원	박강자	대표회원	윤영수	대표회원	전욱	(7중선명가4대손)	